한국무용과학회지, 2019, 제36권 제1호, pp.45~59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2019, Vol.36, No.1, pp.45~59

1229-7836/19/521

DOI http://dx.doi.org/10.21539/Ksds.2019.36.1.45

# 무용전공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취업준비역량에 미치는 영향

김하연* 한양대학교

본 연구는 무용전공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취업준비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5개 대학의 무용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368명을 유의표집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검사를 거친 후 사용하였다. 수집 된 설문자료는 통계프로그램 IBM SPSS Statistics Version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t-검정, 일원변량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하였다.

첫째, 무용전공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하위요인인 행동적전략, 건설적사고전략, 자연보상전략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미래계획,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셀프리더십 행동적전략과 건설적사고전략은 자기평가와 문제해결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용전공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하위요인 중 자연보상전략, 행동적전략은 취업준비역량의 하위요인인 취업정보탐색,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용전공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수집, 문제해결이 취업준비역량의 하위요인인 취업정보탐색에, 그리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미래계획,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은 취업준비역량의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무용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취업준비역량에 작용하는 의미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준비역량, 무용전공대학생

## Ⅰ.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청년실업률이 IMF(외환위기시절)직후인 1999년 136만 4천명을 기록한 후 역대 최대치 수준에 도달해 최악의 상황으로 지속되고 있다(SBS뉴스, 2018.09.12.20:19, 김정우). 이러한 경기침체 가운데 취업을 포기하는 젊은 청년들이 증가되어 '청년취업난'과 '고학력실업자'가 최근 사회적 고용부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청춘들을 표현하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청년실신", "취포자(취업포기자)" 등의 신조어들은 해가 갈수록 유행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청년실업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아시아경제, 2017.03.22.10:54, 조슬기나)

실업률의 수치가 대폭적으로 오르는 20대 중후반은 2017년 8월 기준 통계청 집계결과에 따라 실업자 100만1천

* 본 연구는 김하연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nn744423@naver.com

명 중 49만1천명의 절반 가까운 수가 고학력(대학교, 대학원)자 인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7.10.01.07:40, 한상균). 명문대 졸업생과 석·박사 대학원생들과 같은 취업준비생들은 다양한 취업요건과 실무에 적합한 자격증 및 화려한 스펙을 쌓기 위해 긴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실패의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취업준비생들 가운데서도 취업의 문턱을 넘기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예체능계열이다. 1239명의 취업준비생대상자들을 전공별로 나누어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취업준비방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53.9%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예체능학생들은 취업준비에 대한 막막함을 호소하였으며 입사하고자하는 희망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매일경제, 2018.09.15.11:26:10, 김제이). 또한 과거 2016년 기준 교육통계서비스에서도 예체능계열 취업률은 56.6%로 전체 계열 평균수치인 67%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심각한 상황은 상대적으로 예체능계열 졸업생들의 고용률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김유경, 2017).

타과와의 통합위기인 동시에 폐과의 상황에 놓인 무용과는 2,000여명 이상의 졸업생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타 전공에 비해 취업에 대한 혼란과 어려움 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이윤혜, 2003; 문선화, 이태구, 이한주, 2016). 그러나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사회무용분야와 무용공연관련전문직의 인력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현장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차별성과 전문성이 갖춰진 다양하고 체계화된 전문교과과정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박윤희, 2012). 또한 이는 대학의 교과과정이 전반적으로 실기위주의 지도로 이루어져 있고, 현실적인 진로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준비가 미비한 것 또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으며,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민감한 사회와 대응하는 취업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도 부족하기 때문이다(박기선, 2003; 박윤희, 2012; 박진희,2011; 이보미, 2008; 조기윤, 2011). 따라서 무용전공대학생들이 미래 직업과 경력에 전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취업진로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사회가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준비역량 등이 교육과정에 접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취업준비역량이란 취업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며, 취업을 대비하기 위한 행동으로 취업정보탐색과 취업준비행동으로 구성된다. 이는 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행동적 역량을 다루고 있으며, 각박한 현실 속에서 대면하게 되는 취업문제 및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행동역량을 의미 한다(고완숙, 2014). 셀프리더십은 자아를 발견하는 자아완성의 과정을 의미한다(Manz, 1986 ;이종원, 2014). 타인의 지시나 외부적인 통제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가 내면에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개발시켜 자율성, 책임감, 통제성을 심어주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리더십이 요구되는 갑작스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나 순간리더십을 발휘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최인선, 주은지, 2016).

셀프리더십에 관련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기업 내 성인(회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아쉬운 실정이다(김인건,2009; 정은주, 2015). 또한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효과성, 교육프로그램, 주도학습능력, 창의성, 지도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정학과 대학생들의 성향을 고려한 연구와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업준비행동에 관련한 국내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특히 취업률이 현저히 낮은 무용전공대학생들에게 셀프리더십은 취업준비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고,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셀프리더십과 자아개념, 혁신행동, 전공몰입, 진로동기, 진로성숙, 취업전략, 취업의욕, 성격특성, 감성지능 등을 복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이루어 지

Copyright© 2019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무용전공대학생들이 올바른 미래목표를 설계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셀프리더십과 취업준비역량을 매개하는 의미 있는 변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상정할 수 있다.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셀프리더십을 통해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성숙한직업인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자기효능감이다(Neck & Houghton, 2006). 또한 본인에게 적합한 진로를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다(Hackett & Betz, 1981; Taylor & Betz, 1983; Kossek, Roberts, Fisher, & Demarr, 1998). 이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진로선택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심리적 기제이다(이기학, 이학주, 2000; 이정규, 2006). 진로에 관한 조명실(2006)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과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다양한 진로를 탐색, 결정, 유지 하는 과정까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진로성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보고하였다(Lent & Hackett, 1987; Brown, Lent & Gore, 2000). 또한 심정호(2016)의 연구에서는 무용전공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수준을 강조한바 있다. 따라서 학과의 특성과 성향을 고려한 무용전공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취업준비역량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준비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대상에 의해 수행되어져 왔으나 취업률이 현저히 낮은 예체능 분야는 이와 관련 된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무용전공생의 셀프리더십과 자기관리에 관련한 연구(현보람, 2012; 백운옥, 2010)이외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취업준비역량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취업준비역량이 어떠한 관련성과 영향력 등이 작용하는지 규명함으로써 그 구조와 관계를 밝히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는 무용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시켜 무용과 취업률 개선 및 실업률 감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사회를 구성하는 한 일원으로 적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대학진로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써 그 의미를 가질 것이며, 문화예술분야 발전에 기여할 창의적 미래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전공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무용전공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취업준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무용전공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취업준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가?

## Ⅱ.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의 5개 무용과를 임의선정 하였으며, 무용전공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유의표본추출법으로 무용전공대학생 386명을 표집

하였다. 표집기간은 2017년9월19일부터 2017년10월28일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회수된 설문지 386부중 신뢰도가 낮은 18부를 제외한 368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표 1〉은 수집된 368명의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특성 | 수준 | 빈도 | 비율(%) |
|---|---|---|---|
| 성별 | 남자 | 59 | 16.03 |
| | 여자 | 309 | 83.97 |
| 학년 | 1학년 | 104 | 28.26 |
| | 2학년 | 95 | 25.81 |
| | 3학년 | 80 | 21.74 |
| | 4학년 | 89 | 24.18 |
| 전공 | 발레 | 87 | 23.64 |
| | 한국무용 | 107 | 29.08 |
| | 현대무용 | 163 | 44.29 |
| | 기타전공 | 11 | 2.99 |
| 경력 | 5년미만 | 111 | 30.16 |
| | 5년이상~10년미만 | 147 | 39.95 |
| | 10년이상 | 110 | 29.89 |
| 전공만족도 | 만족하지못한다 | 38 | 10.33 |
| | 보통이다 | 123 | 33.42 |
| | 만족한다 | 207 | 56.25 |
| 총 | | | 100% |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무용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준비역량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설문지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 및 보완 하여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설문지 조사문항은 5단계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였으며, 항목은 각 측정변수 별로 배열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그렇다'(5점)의 5점척도로 점수가 클수록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지 문항은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전공, 경력, 전공만족도)을 측정하는 5문항, 무용전공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을 측정하는 15문항,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20문항, 취업준비역량을 측정하는 14문항 총 5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셀프리더십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무용전공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하여 Houghton과 Neck(2002)이 개발한 설문 RSLQ(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을 참고로 사용하였으며, 이 질문문항은 국내연구 김보경, 정철영(2012), 신은영, 최은수(2009), 이종원(2014)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질문지형태이다. 또한 이종찬, 홍아정(2013)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 하였다. 3개의 하위요인으로는 행동적전략, 건설적사고전략, 자연보상전략으로 총 15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40 이하의 공통성을 보인 자연보상전략에 관한 질문 7번문항('과제 수행 시 마무리하는 것에만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즐겁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Copyright© 2019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진행하려한다')과 건설적사고전략에 관한 질문 11번문항('나는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나의 모습을 먼저 상상해본다')를 제외하고 3요인 13문항이 최종적으로 추출되었다.

####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무용전공대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Crites(1978)의 진로성숙도 모형에 기초하여 Taylor과 Betz(1983)가 개발하고 사용하였던 Career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CDMSES)의 단축형 척도인 CareerDecision-Making Self-Efficacy Short From(COMSE-SF)를 국내연구 이기학, 이학주(2000), 이은진(2001)에서 사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질문지형태를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 하였다. 5가지 하위요인으로는 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로 총 20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40 이하의 공통성을 보인 직업정보수집에 관한 질문 5번문항('나는 관심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6번문항('내가 고려하고 있는 직업의 평균연봉을 파악할 수 있다')을 제외하고 5요인 18문항이 최종적으로 추출되었다.

#### 3) 취업준비역량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무용전공대학생들의 취업준비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내연구 고완숙(2014), 박윤주(2015), 임동순(2015), 최인선(2015)을 참고로 하여 김유경(2017)의 연구에서 사용, 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질문지 형태를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 하였다. 2개의 하위요인으로는 취업정보탐색, 취업준비행동으로 총 14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40 이하의 공통성을 보인 취업정보탐색에 관한 질문 1번문항('최근 나는 내가 관심이 있는 취업과 관련된 책이나 팜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 보았다'), 2번문항('최근 나는 내가 관심이 있는 취업 관련된 교육기관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3번문항('최근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 본적이 있다'), 4번문항('나는 내가 관심이 있는 취업분야 준비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적 및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와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질문 9번문항('나는 내가 관심있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학원 등에 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12번문항('나는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학부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를 제외하고 2요인 8문항이 최종적으로 추출되었다.

### 3.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설문문항 구성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본 조사 자료를 토대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 〈표 3〉, 〈표 4〉와 같다.

표 2. 무용전공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사 결과

| 설문문항 | | 셀프리더십 | | |
|---|---|---|---|---|
| | | 행동적전략 | 건설적사고전략 | 자연보상전략 |
| 3 | 나는 성과를 내기 위해 구체적 목표들을 세분화하여 작성함 | .761 | .014 | .244 |
| 1 | 나는 나의 공부나 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움 | .747 | .134 | .255 |
| 4 | 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내가 맡은 부분의 진행사항과 결과를 꼼꼼히 점검함 | .734 | .182 | .135 |
| 5 | 나는 할 일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함 | .647 | .373 | -.008 |

| | 설문문항 | 셀프리더십 | | |
|---|---|---|---|---|
| | | 행동적전략 | 건설적사고전략 | 자연보상전략 |
| 2 | 나는 스스로 세운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함 | .628 | .258 | .201 |
| 6 | 나는 내가 학교나 학과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살펴봄 | .564 | .484 | -.108 |
| 14 |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한 내 생각이나 판단이 적합한지 평가해 보려고 노력함 | .137 | .760 | .195 |
| 12 | 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를 실제로 해결하기 전에 내가 사용할 방법을 머릿속으로 시연해 봄 | .137 | .707 | .190 |
| 15 | 나는 평소에 내 기본 신념이나 과정들이 합리적인지 생각해 봄 | .379 | .678 | .001 |
| 13 |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잘할 수 있다' 이야기 하거나 마음속으로 되 뇌일 때가 있음 | .126 | .659 | .360 |
| 10 | 나는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 혹은 공부에서 가장 흥미로운 분야를 찾는데 관심이 많음 | .264 | .537 | .387 |
| 8 | 나는 어떤 과제를 맡든지 즐겁게 수행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구상함 | .217 | .128 | .825 |
| 9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스스로 동기부여 함 | .162 | .355 | .761 |
| | 신뢰도 | .828 | .800 | .717 |
| | 고유치 | 3.146 | 2.894 | 1.808 |
| | 분산(%) | 24.204 | 22.260 | 13.908 |
| | 누적(%) | 24.204 | 46.463 | 60.372 |

표 3. 무용전공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사 결과

| | 설문문항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 | | |
|---|---|---|---|---|---|---|
| | | 미래계획 | 자기평가 | 직업정보 수집 | 목표설정 | 문제해결 |
| 15 | 나는 이력서를 잘 작성할 수 있음 | .757 | .058 | .140 | .086 | .151 |
| 16 | 나는 취업면접과 관련되는 절차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수 있음 | .738 | .131 | .259 | .106 | .140 |
| 17 | 나는 선택한 전공과 관련하여 학업 상 문제가 있을경우,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지 방법들을 결정할 수 있음 | .644 | .216 | .159 | .172 | .141 |
| 14 | 나는 선택한 전공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데 필요한 단계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음 | .550 | .211 | .183 | .348 | .142 |
| 18 |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공 또는 진로목표를 위한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454 | .144 | .157 | .398 | .361 |
| 4 | 내가 원하는 생활방식(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 | .003 | .697 | .254 | .005 | .315 |
| 1 | 나의 능력을 명확히 평가 할 수 있음 | .383 | .692 | -.038 | .117 | -.002 |
| 3 | 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할 수 있고 없는지를 구분할 수 있음 | .059 | .685 | .215 | .141 | .094 |
| 2 |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음 | .320 | .630 | .161 | .272 | -.026 |
| 8 | 나는 대학원이나 전문 교육기관 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음 | .334 | .097 | .737 | -.040 | .160 |
| 9 | 나는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들 중에서 원하는 하나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음 | .173 | .172 | .691 | .214 | .049 |
| 7 |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이미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음 | .151 | .152 | .686 | .252 | .043 |
| 10 | 나는 희망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진로를 선택함 | .097 | .355 | .481 | .388 | .154 |
| 11 | 나는 진로를 결정한 후에 그 결정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음 | .240 | .007 | .143 | .718 | .142 |
| 12 | 내 흥미나 관심에 부합하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음 | .055 | .289 | .186 | .704 | .194 |
| 13 | 나는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음 | .438 | .204 | .177 | .529 | .049 |
| 19 | 내가 처음 선택한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바꿀 수 있음 | .182 | .112 | .098 | .125 | .801 |
| 20 | 나는 가장 원하는 전공이나 직업을 얻지 못하는 경우, 합리적인 대안이나 다른 진로를 알아낼 수 있음 | .207 | .103 | .091 | .191 | .792 |

Copyright© 2019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 설문문항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 | | |
|---|---|---|---|---|---|
| | 미래계획 | 자기평가 | 직업정보 수집 | 목표설정 | 문제해결 |
| 신뢰도 | .803 | .729 | .736 | .663 | .678 |
| 고유치 | 2.795 | 2.298 | 2.135 | 2.040 | 1.705 |
| 분산(%) | 15.530 | 12.765 | 11.862 | 11.331 | 9.472 |
| 누적(%) | 15.530 | 28.295 | 40.157 | 51.488 | 60.960 |

표 4. 무용전공대학생의 취업준비역량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사 결과

| | 설문문항 | 취업준비역량 | |
|---|---|---|---|
| | | 취업정보탐색 | 취업준비행동 |
| 7 | 나는 내가 관심이 있는 취업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음 | .847 | .152 |
| 8 | 나는 취업을 위해 관심이 있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음 | .774 | .154 |
| 6 | 나는 내가 관심이 있는 취업 분야와 관련된 TV프로그램, 전시회, 설명회 등을 시청하거나 참관 한 적이 있음 | .746 | .188 |
| 5 |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취업 분야와 관련된 센터나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거나 방문계획을 세운 적이 있음 | .606 | .417 |
| 11 | 나는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준비를 하고 있음 | .030 | .788 |
| 14 | 나는 관심 있는 분야의 업체(기관, 진학)에 대한 여러 정보(취업방법, 보수, 승진제도, 전망)를 수집하거나 혹은 그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음 | .214 | .748 |
| 10 | 나는 이력서에 포함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경력을 준비 하고 있음 | .271 | .675 |
| 13 | 나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과 관련하여 특강이나 학원 등을 수강함 | .271 | .660 |
| | 신뢰도 | .788 | .736 |
| | 고유치 | 2.434 | 2.327 |
| | 분산(%) | 30.425 | 29.093 |
| | 누적(%) | 30.425 | 59.518 |

##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응답결과 자료를 회수한 후 신뢰성이 떨어지는 무응답, 이중기입, 응답이 부실한 자료는 제외시키고 수집된 자료의 유효 표본을 코딩 부호화 작업을 하여 통계프로그램인 SPSS Version 18.0를 이용해 분석 목적에 따라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의 타당도검증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신뢰도검증(reliability analysis)은 Cronbach's a검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세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 Scheffe를 사용하여 사후검증 하였다. 무용전공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취업준비역량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변인간의 영향력을 분석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각 문제의 유의 수준 $\alpha$=.05 으로 설정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무용전공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준비역량의 상관관계 분석

척도들에 본 연구에서는 무용전공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취업준비역량의 관계를 규명하기에 앞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상관계수는 미래계획과 목표설정(r=.617)가 가장 높으며  자기평가와 취업정보탐색의 관계(r=.237)가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측정변인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r=.617 이하로 나타나 모든 연구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입증 되었다.

표 5. 무용전공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준비역량의 상관관계 분석

| 변인 | 행동적 전략 | 건설적 사고전략 | 자연보상 전략 | 미래계획 | 자기평가 | 직업정보 수집 | 목표설정 | 문제해결 | 취업정보 탐색 | 취업준비 행동 |
|---|---|---|---|---|---|---|---|---|---|---|
| 1 | 1 | | | | | | | | | |
| 2 | .612** | 1 | | | | | | | | |
| 3 | .435** | .563** | 1 | | | | | | | |
| 4 | .485** | .487** | .382** | 1 | | | | | | |
| 5 | .431** | .435** | .288** | .518** | 1 | | | | | |
| 6 | .451** | .459** | .375** | .577** | .535** | 1 | | | | |
| 7 | .463** | .450** | .356** | .617** | .497** | .556** | 1 | | | |
| 8 | .372** | .352** | .242** | .478** | .351** | .364** | .426** | 1 | | |
| 9 | .355** | .346** | .401** | .367** | .237** | .445** | .334** | .292** | 1 | |
| 10 | .394** | .292** | .315** | .459** | .264** | .398** | .424** | .265** | .517** | 1 |

**$p$<.01

## 2. 무용전공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표 6〉는 무용전공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6〉에 의하면  셀프리더십의 행동적전략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미래계획($\beta$=.282, $p$<.001), 자기평가($\beta$=.260, $p$<.001), 직업정보수집($\beta$=.252, $p$<.001), 목표설정($\beta$=.284, $p$<.001), 문제해결($\beta$=.246, $p$<.001)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적사고전략이 미래계획($\beta$=.247, $p$<.001), 자기평가($\beta$=.259, $p$<.001), 직업정보수집($\beta$=.226, $p$<.001), 목표설정($\beta$=.213, $p$<.01), 문제해결($\beta$=.184, $p$<.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보상전략은 미래계획($\beta$=.120, $p$<.05), 직업정보수집($\beta$=.138, $p$<.05), 목표설정($\beta$=.112, $p$<.05)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전공대학생의 미래계획, 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문제해결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전체 예언 변량은 각각 30.3%, 23.3%, 26.9%, 26.7%, 16.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Copyright© 2019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표 6. 무용전공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미래계획 | | | 자기평가 | | | 직업정보수집 | | | 목표설정 | | | 문제해결 | | |
|---|---|---|---|---|---|---|---|---|---|---|---|---|---|---|---|
| | B | β | t | B | β | t | B | β | t | B | β | t | B | β | t |
| (상수) | 1.119 | | 6.428*** | 1.600 | | 9.243*** | 1.395 | | 7.797*** | 1.395 | | 5.788*** | 1.489 | | 6.475*** |
| 행동적 전략 | .294 | .282 | 5.037*** | .257 | .260 | 4.431*** | .265 | .252 | 4.412*** | .324 | .284 | 4.955*** | .310 | .246 | 4.013*** |
| 건설적 사고전략 | .242 | .247 | 4.062*** | .241 | .259 | 4.063*** | .222 | .226 | 3.627*** | .228 | .213 | 3.419** | .218 | .184 | 2.765** |
| 자연보상 전략 | .095 | .120 | 2.240* | .022 | .029 | .523 | .110 | .138 | 2.523* | .097 | .112 | 2.043* | .030 | .031 | .528 |
| $R^2$ | .303 | | | .233 | | | .269 | | | .267 | | | .164 | | |

*$p$<.05, **$p$<.01, ***<.001

## 3. 무용전공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취업준비역량에 미치는 영향

〈표 7〉는 무용전공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취업준비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7〉에 의하면 셀프리더십의 행동적전략이 취업준비역량의 하위요인인 취업정보탐색(β=.189, $p$<.01), 취업준비행동(β=.318, $p$<.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연보상전략이 취업정보탐색(β=.277, $p$<.001), 취업준비행동(β=.179, $p$<.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전공대학생의 취업정보탐색과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전체 예언 변량은 각각 20.4%, 18.0%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표 7. 무용전공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취업준비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취업준비역량 | 취업정보탐색 | | | | 취업준비행동 | | | |
|---|---|---|---|---|---|---|---|---|
| | B | β | t | p | B | β | t | p |
| (상수) | 1.465 | | 7.115*** | .000 | 1.454 | | 7.174*** | .000 |
| 행동적전략 | .219 | .189 | 3.168** | .002 | .357 | .318 | 5.242** | .002 |
| 건설적사고전략 | .080 | .074 | 1.137 | .256 | -.003 | -.003 | -.043 | .965 |
| 자연보상전략 | .244 | .277 | 4.853*** | .000 | .152 | .179 | 3.080** | .002 |
| $R^2$ | .204 | | | | .180 | | | |

**$p$<.01, ***<.001

## 4. 무용전공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취업준비역량에 미치는 영향

〈표 8〉는 무용전공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취업준비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8〉에 의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미래계획이 취업준비역량의 하위요인인 취업준비행동(β=.273,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정보수집이 취업정보탐색(β=.344, $p$<.001), 취업준비행동(β=.164, $p$<.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표설정은 취업준비행동(β=.190, $p$<.01)에만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마지막으로 문제해결은 취업정보탐색(β=.111, $p$<.05)에만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전공대학생의 취업정보탐색,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전체 예언 변량은 각각 23.1%, 25.8%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표 8. 무용전공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취업준비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취업준비역량 | 취업정보탐색 | | | | 취업준비행동 | | | |
|---|---|---|---|---|---|---|---|---|
| | B | β | t | p | B | β | t | p |
| (상수) | 1.319 | | 5.999*** | .000 | 1.163 | | 5.552*** | .000 |
| 미래계획 | .130 | .117 | 1.773 | .077 | .293 | .273 | 4.208*** | .000 |
| 자기평가 | -.091 | -.078 | -1.330 | .184 | -.074 | -.065 | -1.136 | .257 |
| 직업정보수집 | .380 | .344 | 5.567*** | .000 | .175 | .164 | 2.699** | .007 |
| 목표설정 | .062 | .061 | .971 | .332 | .187 | .190 | 3.055** | .002 |
| 문제해결 | .102 | .111 | 2.074* | .039 | .015 | .017 | .315 | .753 |
| $R^2$ | .231 | | | | .258 | | | |

*p<.05, **p<.01, ***<.001

# Ⅳ. 논 의

본 연구는 무용전공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취업준비역량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와 비교 및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무용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모두 상대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자세한 연구결과를 살펴보자면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인 행동적 전략, 건설적사고 전략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미래계획, 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문제해결 모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자연보상전략은 미래계획,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에만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이종찬과 홍아정(2013)의 선행연구에서 규명한바 있는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이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를 이뤘고, 김보경과 정철영(2012)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동기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규명한 연구결과 또한 선행연구로써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그리고 비서학을 전공하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예측변인으로 셀프리더십의 하위변인(자기기대 수준)을 보고하고, 또 다른 결과로 셀프리더십의 종속변인으로 가장 잘 예측한 한나리와 전지현(2012)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무용 전공 대학생들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셀프리더십이 높아질수록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스스로 자존감과 신념을 높일 수 있음과 동시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라 사료된다.

둘째, 무용전공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취업준비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셀프리더십의 하위 요인인 행동적전략, 건설적사고전략, 자연보상전략은 취업준비역량의 하위요인인 취업정보탐색과 취업준비행동 모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변인의 영향력이 높아질수록 취업정보를 탐색하는데 있어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실천적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국내 배성아와 성소연(2016)의 선행연구에서 규명한 셀프리더십이 무용전공자의 취업준비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부사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본인 확신성이 본인에 맞는 취업준비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규명한 나용주와 윤병섭(2017)과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즉, 이러한 선행연구

Copyright© 2019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와 본 연구결과를 참고로 할 때 무용전공자들에게 있어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에 매우 크게 작용하는 의미 있는 변인이라 사료된다. 또한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취업준비역량을 향상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통합적 관계를 통해 규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의 영향력으로 인한 취업준비역량에 대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아주 미비한 실정이며 추후 연구부분을 더 확장해나갈 필요성이 강조된다. 좀 더 구체적이고 복합전인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융합적 연구는 향후 미래의 교육부분에 있어 상당히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무용전공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취업준비역량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직업정보수집과 문제해결은 취업준비역량의 하위요인인 취업정보탐색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도출 하였다. 따라서 두 변인의 유능감이 높아질수록 취업정보를 탐색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미래계획,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은 취업준비역량의 하위요인 중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 변인에 대한 신념이 높아질수록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할 것 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연구에서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모든 요인이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규명한 진경미(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를 이루며, 김명옥과 박영숙(2012)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학년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을 이루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 한다. 이로써 높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취업준비역량은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규명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무용전공 학생들에게 있어 셀프리더십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불분명한 미래 직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것이며 안정된 직업 갖기를 위한 개개인의 취업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졸업 후 나타나는 문제현상(대졸취업난, 청년실업난) 해결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과정에 속해있는 학생들에게 셀프리더십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교육받음으로써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졸업생이자 한 분야의 전문가로써 전공트랙을 살려 분야를 넓히고 개척하여 사회와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또한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해 취업준비능력을 양성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무용 전공생을 지도하는 교수나 학교에서도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지도법에 대한 정성적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취업준비역량을 높이고 나아가 성공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무용전공생들이 될 수 있도록 진로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무용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취업준비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그 영향력 및 인과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규명하고자 서울과 경기에 있는 무용전공학과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설정하고,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으로 무응답, 불성실 응답의 가치 없는 17부를 제외한 368명의 자료를 실제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목적에 따라 통계프로그램인 SPSS Version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t-test, 일원변량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기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도출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전공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하위요인인 행동적전략, 건설적사고전략, 자연보상전략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미래계획과 직업정보수집 및 목표설정에 행동적전략과 건설적사고전략이 자기평가와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용전공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하위요인인 자연보상전략과 행동적전략이 취업준비역량 하위요인인 취업정보탐색과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용전공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수집과 문제해결이 취업준비역량의 하위요인인 취업정보탐색에 미래계획,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이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무용전공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취업준비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규명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무용전공대학생들의 취업준비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시기에 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진로개발에 필요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해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교육기관에서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직업진로발달 프로그램을 다방면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미래진로진출에 관련해서 필수적인 역량 '자기효능감' 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위의 결론에 따라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한계점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무용전공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양적연구가 이루어져 결론을 도출하는데 아쉬움이 남았다. 양적연구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변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양적연구를 바탕으로 한 무용전공생들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개발,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보고는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을 구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개발에 관련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무용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실업률을 개선시키고 학생들의 취업역량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연계성이 있고 그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프로그램 개발 및 자기관리프로그램이 개발 되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되어져야 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고완숙(2014). **취업준비대학생이 지각한 취업장벽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명옥, 박영숙(2012).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11), 69-90.

김보경, 정철영(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 개인이 인식한 문제해결력 및 진로동기의 인과적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한국농업교육학회, 44**(2), 49-71.

김인건(2009). **기업가의 규칙적 운동이 셀프리더십과 목표달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김유경(2017). **무용전공학생들의 교수지지와 셀프리더십, 진로개발능력, 취업역량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나용주, 윤병섭(2017).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영컨설팅연구, 17**(1), 135-150.

문선화, 이태구, 이한주(2016). 무용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진로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발: 새로운 취업경로인 초등 돌봄전담사 측면에서, **한국무용과학회지, 33**(3), 27-41.

박기선(2003). **무용전공 대학생의 취업인식도 및 교과과정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Copyright© 2019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박윤주(2015).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박윤희(2012). **무용전공대학생의 취업환경변화에 따른 교과과정의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진희(2011). **대학 무용(학)과의 교과과정에 따른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배성아, 성소연(2016).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 1-22.

백운옥(2010). **무용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신은영, 최은수(2009). EFL 성인학습자의 셀프리더십 개발을 위한 측정도구의 개념화. **평생교육 HRD연구, 5**(3), 199-219.

심정호(2016). **무용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이기학, 이학주(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이보미(2008). **대학 무용 전공자들의 진로 선택에 관한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이윤혜(2003). **사회활동에 필요한 무용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은진(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정규(2006).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고3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0**(3), 571-586.

이종원(2014).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진로동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이종찬, 홍아정(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한국진로교육학회, 26**(1), 69-92.

임동순(2015).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진경미(2015).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24**(6), 145-162.

조기윤(2011).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조명실(2006).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은주(2015). **항공사 승무원 취업준비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최인선(2015). **대학생활적응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최인선, 주은지(2016). 대학생활적응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6), 145-173.

한나리, 전지현(201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비서·사무경영연구, 21**(2), 83-99.

현보람(2012). **한국무용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자기관리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정우.『SBS뉴스』(2018.09.12.20:19), 실업자 수도 청년실업률도 어쩌나… IMF 이후 '최악',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32256#openPrintPopup&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김제이.『매일경제』(2018.09.15.11:26), 취준생 10명 중 4명 "취업 준비 막막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82626.

조슬기나.『아시아경제』(2017.03.22.10:54), [또 청년대책]청년실신·이생망…10차례 대책 쏟아내도 답없는 청년실업,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32209065879822.

한상균.『연합뉴스』(2017.10.01.07:40), '고향가기가…' 대졸 실업자 50만 시대…3명중 2명은 청년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584771&sid1=001.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Brown, S. D., Lent, R. W., & Gore, P. A.(2000). Self-rated abilities and self-efficacy beliefs : Are they empirically distinc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8*, 223-235.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Administration & use manual*. CTB/McGraw-Hill.

Hackett, G., Betz, N. E.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 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 in college woma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377-410.

Hackett, G., Betz, N. E.(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Houghton, J. D., Neck, C. P.(2002).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 672-691.

Kossek, E. E., Roberts, K., Fisher, S., & Demarr, B. (1998). Career self-management: A quasi-experimental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a training intervention, *Personnel Psychology, 51*(4), 935-960.

Lent, R. W., Hackett G.(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347-382.

Manz, C. C. (1986).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3), 585-600.

Neck, C. P., Houghton, J. D.(2006). Two decades of Self-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Past development present trends, and future possibilitie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1*(4), 270-295.

Taylor, K. M., Betz, N. E.(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Copyright© 2019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ABSTRACT

# The Influence of Self-Leadership of Dance Major Students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Job Preparation Ability

**Kim, Ha-Yeon** *Hanyang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mpirically the effects of self - leadership of dance major students on career decision self - efficacy and job preparation ability. 368 students were selected from five dance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The questionnaires used in this study were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were used after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IBM SPSS Statistics Version 18.0.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the behavioral strategy, constructive thinking strategy, and natural compensation strategy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future planning, job information collection and goal setting, which are sub - factors of career decision self - efficacy . Self - leadership behavioral strategies and constructive thinking strategi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self - evaluation and problem solving.

Second, natural compensation strategy and behavioral strategy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job search information search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Third, collecting job information and solving problems significantly affected job search information. In addition, career decision self - efficacy, future planning, job information collection, goal sett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job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self - leadership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ance is a meaningful factor affecting career decision self - efficacy and job preparation ability.

**Key words** :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b preparation ability, dance major students

**논문투고일:** 2018. 11. 30
**논문심사일:** 2019. 01. 10
**심사완료일:** 2019. 01. 17